

클린스만호 1기 명단 공개

## 월드컵 16강 멤버 '중심'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 26명 중 24명 그대로 발탁

'유럽파 변신' 오현규·'K리그1 도움왕' 이기제 승선

클린스만호 1기가 공개된 가운데 예고대로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멤버가 중심이 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3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총 26명의 소집명단을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의 첫 명단이다.

예상대로 변화 폭은 적었다. 앞서 '월드컵 멤버 중심'의 첫 명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던 클린스만 감독은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 26명 중 24명을 그대로 발탁했다.

명단에서 빠진 윤종규(서울)와 흥철(대구)도 부상이 이유였다.

월드컵 16강 멤버가 주축을 이룬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추가 선택을 받은 두 명은 공격수 오현규(셀틱)와 츄면 수비수 이기제(수원)다.

오현규는 27번째 예비 선수로 카타르월드컵에 동행해 사설상 월드컵 멤

버로 보는 게 맞다.

월드컵 당시 프로축구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오현규는 16강 진출을 앞에서 도운 뒤 올해 1월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으로 이적했다.

오현규는 셀틱 아직 후 주로 교체

자원으로 뛰며 순조롭게 적응 중이다.

지난 5일에는 세인트마리언과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스코틀랜드 정규리

그 대비골을 터트렸다. 지난달 스코티

시컵 16강전을 포함하면 공식전에서 2

골을 기록 중이다.

카타르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뛴 황의

조(서울)와 조규성(전북)이 K리그 개

막 후 주축인 가운데 가장 꾸준한 활

약을 보이는 공격수가 바로 오현규다.

오현규와 함께 새롭게 발탁된 츄면

수비수 이기제(수원)도 낯선 인물은

아니다. 벤투호 시절 대표팀에 오른

경험이 있다.

지난 2021년 6월 월드컵 2차예선 때

벤투 전 감독의 부름을 받고 투르크메

니스탄 스티링카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김진수(전북)가 불발이 원쪽 수비수로 활약하는 가운데 흥철이 부상으로 나마逃避하면서 벤투호 시절에도 3번째 옵션으로 평가받던 이기제가 다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 K리그 도움왕(14회)을 차지할 정도로 날카로운 원발 칙력을 자랑한다.

A매치 경험은 적지만 K리그 통산 144경기에서 8골 28도움을 기록 중인 베테랑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3월 A매치에 월드컵 멤버 위주의 명단을 짠 건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입국해 12일 서울월드컵경

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FC서

울과 울산 현대의 경기를 직관했지만,

한 경기로 파악하기 어렵웠다.

다만 월드컵 16강으로 이미 겸증된 선

수들로 다시 한번 살피고 향후 선수단

운영에 참고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월드컵 본선 무대를 경험하지 못한 오현규와 이기제에게 새로운 운동기

부여가 될 전망이다.

/뉴스

## 전주고 야구부, 전국 강팀으로 '우뚝'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 '2위'



지난해 대통령배 고교야구 대회에서 준우승 한 전주고 야구부가, 이번에는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은 파이낸셜뉴스와 부산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명문고 야구 열전은 시즌 초에 시작하는 대회로, 많은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회 이기도 했다.

전국구 최고의 명문 야구 고등학교

교민이 초청되어 치러진 대회로, 경

남고, 경북고, 광주제일고, 대구고,

대구 상원고, 덕수고, 미산고, 부산

고, 북일고, 서울고, 충암고, 전주고

12팀이 초청됐고, 지난 8일부터 12

일까지 5일간 부산 기장군 현대차

드림볼 파크에서 치러졌다.

전주고는 충암고에 5 대 2, 천안

북일고에 12 대 8, 부산고에 6 대 5

의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 집중됐다.

전국 강팀으로 우뚝 서게 된 전주고 야구부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 정읍시장배 검도대회 성료

정읍시에서 열린 2023 정읍시장배 전국 검도 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2 일까지 2일간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후원하고 정읍시체육회(회장 최규철)와 정읍시검도협회(회장 강신무)가 주최·주관했다.

대회에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50개 팀 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로 구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대회 첫날 남자부 개인전에서는 열 린 경쟁 끝에 초등부 1~2학년 김현(세종), 3~4학년 김도영(전북), 5~6 학년 윤찬(전북), 청소년부 노호정(전북)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또 여자부 경기에서 초등부 입재 이(세종), 청소년 김도윤(전북), 일반부 김정미(광주) 선수 등 7명의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정읍 대승검도관 소속 김지훈 선수가 중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선용 선수가 장년부 준우승, 김재우 선수가 청년부 3위를 달성했다.

또한 일반부 남·여 통합 단체전 준우승 여자 초등부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이번 대회 종합순위 3등을 거머쥔다는 영예를 안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장수 장애인탁구선수단, 전국대회 승전보

### 전국장애인탁구 종합선수권서 은메달 2·동메달 1개 획득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 장

수군수)은 최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

관에서 '2023 전국장애인탁구 종합선

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

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자 단식 TT체급 이근우 선수와 남자 단식 TT3체급 백영복 선수가 2위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장수군장애인탁구협회 소속의 김준우 선수가 남자 단식 TT5체급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애인탁구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가 주최하고 울산시장애인탁구협회가 주관했으며, 2023년 탁구 종목에서는 첫 번째 전국대회이자 랭킹 점수 100점을 부여한 메이저대회로 17개 시도에서 500여 명의 선수단 중 장수군 선수 4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장애인탁구선수단은 오는 8월에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2023 코리아오픈 국제 장애인탁구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반부 남·여 통합 단체전 준우승 여자 초등부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이번 대회 종합순위 3등을 거머쥔다는 영예를 안았다.

/정수=고판호 기자

지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수=고판호 기자

## 男프로농구 최고 선수 팬투표

KBL은 13일부터 29일까지 KBL 통합 웹사이트([www.kbl.or.kr](http://www.kbl.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고의 인기 선수를 선정하는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투표를 진행한다.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투표는 KBL 등록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인기상 선정 선수는 30일 정규경기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뉴스

## 태권도 꿈나무들 진안서 기량 발휘

전북교육감배 태권도대회 성료  
선수·가족 등 총 400여명 참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린 제43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도 및 진안군 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태권도 꿈나무와 가족 및 대회

관계자를 비롯해 400여명이 참가해 겨루기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이를간 자웅을 겨루었다.

체급별 개인 토너먼트 3전 다승제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경기결과 초등부 중등부 체급별 우승자는 전국 소년체전에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참가 할 자격이 부여됐고, 고등부 체급별 1,2위는 전국체전 전라북도 대표 선수



및 태권도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참여 확대와 학교체육 정

상회에 기여하고 진안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길



전주매일 캠페인